<◇ 창간1주년 기념 특집Ⅳ: 해외 화학기업 결산>

# “ 군살빼기로 내실 다진다 ”

■ 유럽
■ 미국
■ 일본

지난해 세계 화학산업 경영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석유화학 · 정밀화학을 비롯한 화학산업 전반의 경기후퇴는 세계적 불경기와 맞물려, 최종 수요처인 자동차, 전기 · 전자산업 등의 생산위축에 따른 수요감소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
화학산업의 경기위축은 국가별로 다소 양상을 달리해 지난해 매출액 · 순이익 모두 감소해 적자를 면치 못했던 미국은 4/4분기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던 건축경기가 올들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, 자동차 경기는 계속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그러나 미국의 화학산업은 화학제품 가격하락 및 일본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감소,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강화로 93년까지 바닥권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유럽의 화학업체들도 세계적 경기침체 및 석유화학부문의 공급과잉이 공장폐쇄 및 인원감축으로 이어져 합리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.
특히, 유럽의 화학기업들은 범용화학제품은 물론 Specialty분야에서 수익을 톡톡히 올려 왔으나, 최근 경기위축에 따른 수요감소로 정밀 · 특수분야의 수익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,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.
따라서 유럽화학기업은 이러한 불경기가 향후 2~3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비관론 속에서 자체적 감량경영은 물론 기업간 · 사업부간 합병 및 스와프제도를 통한 체제정비에 주력하고 있다.
일본 화학기업도 경기후퇴는 물론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금융비용이 늘어나고 제반비용이 확대돼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특히, 일본의 순수화학기업은 범용수지 · 화성품시장의 악화, 내수 둔화, 재고급증, 감산작업으로 올해 화학산업 경기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매출 · 순이익 감소속에서도 경영을 효율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진 화학기업들의 군살빼기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.

<화학저널 1992/6/1>